

2월 5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2월 5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블루칩 너마저`..다우 1.51%↓ [다우: 7956.66pt (-1.51%)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약세로 돌아섬. 고용지표는 부진했지만 예상치 범위 내에서 발표된데다, 서비스업지표가 뜻밖의 상승세를 보여 오전 뉴욕증시는 오름세를 보임. 하지만 크래프트푸드와 월트디즈니를 비롯해 GM과 بانک오브아메리카 등 다우 지수 구성종목들이 낙폭을 확대하자, 오후들어 하락세로 방향을 튼.
ISM 서비스지수 예상 밖 상승..민간고용도 예상치 `안도`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한 1월 서비스업(비제조업) 지수는 전월의 40.1에서 42.9로 상승하여, 월가의 컨센서스(블룸버그 집계)인 39도 상회. 다만 경기확장 및 부진의 기준점인 50을 하회해 서비스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음을 확인. 개장전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ADP)이 발표한 전미고용보고서도 월가의 예상치 범위에 들었으나, ADP가 발표한 1월 민간부문 감원규모는 52만2,000명으로 월가의 컨센서스(블룸버그통신 집계)인 53만5,000명을 소폭 하회.
BoA, CEO 교체 둘러싼 내용으로 급락..웰스 파고는 호화 행사건으로 혼출	은행주는 등락이 엇갈림. بانک오브아메리카(BoA)와 웰스 파고가 하락한 반면 씨티그룹은 소폭이나마 오름. 이중 다우 지수 구성종목인 بانک오브아메리카(BoA)는 일부 주주들이 경영실패를 물어 케네스 루이스 CEO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루이스가 퇴진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이 악재가 되어 11%나 떨어짐. 구제자금을 받은 웰스 파고는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호텔에서 사내 행사를 추진하려다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자 서둘러 행사를 취소하였으나, 해프닝이 투자심리에 부담을 줘 웰스 파고의 주가는 4%나 하락.
구리값 상승으로 상품주 강세	구리생산업체인 프리포트맥모란(Freeport-McMoRan)이 구리 값 반등을 배경으로 8%대의 강세로 마감. 짐 카머 CNBC 증권분석가가 유망종목으로 추천한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음. 에너지업체인 내셔널오일웰(National Oilwell)도 작년 4분기 순익이 월가의 전망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으로 6% 오름.
유가 하락..美 원유재고 18개월 최대` [WTI: \$40.32 (+ \$0.46)	미국의 원유 재고가 6주 연속 증가, 18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국제 유가에 하향 압력.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침체 일로에 놓여있다는 소식도 경기후퇴(recession)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를 자극함. 한편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실제 감산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소식은 유가의 낙폭을 제한.

제목	주요 내용
EU-佛 '바이 프랑스' 분쟁 치달나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에 대해 보호주의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이번에는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에 '바이 프랑스'(Buy France) 정책을 경고. 벨리 크뢰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4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공개하면서 자국 자동차업체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가로 자국산 부품을 사용토록 하는 요구하는 것은 경쟁법 등 EU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난함.
中, 방직업 지원 발표... 수출환급세 상향	중국이 의류·방직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율을 14%에서 15%로 인상할 방침. 중국 국무원은 4일 10대 산업 지원안 가운데 방직업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수출환급율을 이같이 올리기로 했다고 밝힘. 이 정책으로 중국은 방직 수출업체들의 비용을 낮추는 등 방직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국 “집값 붕괴 막아라” 대출이자 30% 할인	중국 정부의 중산층 보호정책 핵심은 성장률 8%를 유지하는 '바오바(保八)'정책. 그래야 중산층이 내수 소비를 확대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우선 집값 하락에 따른 은행권 대출이자 부담을 과격적으로 줄여주고, 주택·의료 보장성 정책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음. 농민공 등 실직자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을 적극 유도 중.
현대차 美서 나홀로 판매 상승.	지난 1월 미국시장 내 자동차 판매는 64만2,456대로 지난해 1월에 비해 37.5% 줄었고, 지난해 12월에 비해서도 26.6%나 감소. 반면 현대·기아차는 미국시장에서 선전. 미국내 현대차 판매는 2만4,51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3%, 기아차는 2만2,096대로 3.5% 증가. 미국시장 내 현대·기아차 점유율은 각각 3.7%, 3.4% 등 총 7.1%로 올라섰음.
D램업체 줄줄이 적자	지난 2년간 이어진 시장부진과 함께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주요 업체들은 모두 작년 4분기에 적자를 기록. D램 업체 1위인 삼성전자에 이어 2위인 하이닉스 역시 적지않은 영업적자를 기록. 다만 해외 업체들과 비교할 경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황이 그나마 나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
NHN, 사상 첫 1조원 매출 돌파	NHN은 지난해 연간 총 매출이 전년대비 31.3% 증가한 1조2,081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공시. 국내 인터넷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 시대를 개막. 온라인게임과 전자상거래 부문에서의 계절적 성수기인데다 디스플레이 광고 등이 받쳐주면서 실적회복을 견인했던 것으로 관측됨.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